

이번 탐방은 88서울올림픽 기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스포츠 복지사 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를 방문하였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한 올림픽 기 념시설을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복합 레저문화공간으로 가꾸어나가고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건강과 행복을 추 구하는 최고의 스포츠·문화사업 운영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업계탐방

●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글
· 오정규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팀 차장



최고의 스포츠·문화사업 운영 전문기업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출자회사로서 88서울올림픽 기념시설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되어, 올림픽 시설물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복합 레저문화 공간으로 가꾸어나가고 있다. 올림픽공원은 43만평의 대지 위 에 몽촌토성, 잔디마당, 음악분수, 세계의 유명 조각 작품 200여점과 조형물 이 자리 잡고 있는 세계 5대 조각공원 중 하나이다. 현재는 곳곳에 화훼단지 와 산책로, 야생화 학습장을 운영하는 등 시민에게 사랑받는 휴식공원으로 조성하여 연간 7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시설관리 대상은 올림픽공원 외 에도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경정장, 선수촌·분당·일산 올림픽스포츠클러스터, 광명동경문장, 영주경륜훈련원, 올림픽파크텔로 올림픽공원 내 각종 공연시 설물 대관 사업을 통해 국민체육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공익가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올림픽공원은 국내 공연문화 공간의 메카이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올림 픽홀 등 6개 장소에 각종 공연 및 행사가 331건 개최되었고 약 145만 명이 참 석하였다.



올림픽공원 내 소방시설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이근수 씨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실에서는 매사 고객과 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각종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올림픽공원의 시설관리 및 부가서비스 부문에 대해 ISO 9001과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시설관리 체계를 정립한 바 있다. 이는 시설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고객의 신뢰를 통한 고객감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화재 위험성평가 및 위험진단 실시

올림픽공원 내 소방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이근수씨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의 산 증인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때부터 시설관리를 시작한 그는 시설물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베테랑인 그도 마스크에서 화재사건 뉴스를 접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한다. 아무리 철저히 대비한다 해도 공연 등 행사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족에 가장 미안해

연중 대규모 문화·체육 행사가 수시로 열리는 올림픽공원 시설관리 직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걱정이 앞선다. 행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우려해서다. 평소 각종 소방훈련을 하고 있고, 최근엔 대테러 교육까지 하고 있으나 그래도 늘 불안하다. 중요 VIP가 참가하는 행사라도 열리면 며칠간 집에 못가는 건 다반사다. 그래서 늘 가족에게 미안하다. 특히 연중 하루 방문객수가 가장 많은 어린이날은 전 직원이 비상근무다. 용기종기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다른 가족들을 보노라면, 어린자녀를 둔 직원은 아이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한다. 그러나 나의 수고로 행복해하는 고객을 보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만은 그 누구 못지않다고 한다.

사회공헌에도 앞장서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적이다. 소망의집, 루디아의집, 신망애복지원 등



57

사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8년, 공연이 잦은 올림픽홀과 제1체육관에 대해 국내 화재안전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방재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은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진단과 함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 및 피난분야 위험성 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과 자매결연을 맺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 일간지의 1사1촌 자매결연 캠페인에도 동참하여 올해로 수년째 베페기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국민에게 건강과 활력을”,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가 스포츠·문화산업의 내일을 여는 1등 공기업이 되길 바라며 탐방을 마쳤다. ☺